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꿈* 대한민국의미래
		배포일자	2023년 1월 9일(월) 총 3매	
담당 부서	노인정책과	담당자	• 행복한인생팀장 최민희 ☎440-2836 • 담당자 김숙경 ☎440-2837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올해도 노인일자리 늘려 어르신 소득 증대에 집중
 - 지난해 보다 늘어난 4만6천여개 추진, 다양한 요구 반영한 일자리 마련 -
 - 일자리 소득 공백 없도록 노인일자리 사업도 조기 착수 -

인천시가 올해도 다양한 노인일 자리를 발굴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규모의 노인일 자리 사업을 추진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올해 노인일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난해 보다 595명이 늘어난 4만 6,646명을 목표로, 총 1,788억 원을 투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시는 올해 정부 노인일 자리 사업 정책기조에 맞춰 학교급식 도우미 등 일부 사업의 유형 재편을 통해 어르신들의 추가 소득 확보와 지속적인 일 자리 참여에 집중할 계획이다. 또한 민간업체 취업알선형 사업을 통해 1,097명의 어르신 일 자리를 마련해 제공한다.

특히 내실있는 노인일 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‘인천형 노인 일 자리 발굴 전담팀(TF)’에서 선정된 9개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안

정적인 소득 보충 및 베이붐 세대 진입에 따른 다양한 노령세대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

대표적 사업으로는 교육청 협업 사업인 △학생건강지킴이, △아침이 행복한 학교, △학교시설 야간관리원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△GS25 시니어드림스토어 확대 △노인주유원, 취약계층 노인의 맞춤형 돌봄을 특화한 △취약계층 건강관리사, △키오스크알림이, △눈높이 상담, △인천시티투어 해설사 등이 있다.

앞서 시는 예산집행 특성 상 해가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,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이미 착수했다.

노노케어,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(3만6,514명)와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전문서비스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(5,666명)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일부 사업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. 연중 추진하는 식품제조, 실버카페, 편의점 운영 등 소규모 매장운영, 아파트 택배와 같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(3,369명)은 지난 12월부터 신청받아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.

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“2023년은 노인이 행복한 인천을 목표로 어르신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고 보람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노인일자리 사업은 군·구 행정복지센터, 노인인력개발센터, 노인복지관, 노인회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며, 사업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군·구

청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하면 된다.